

大學의 일차적인 소임은 研究에 있다

鄭 東 湖

(忠北大 哲學科)

대학의 몇 가지 소임들

대학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대학에 주어진 소임에는 연구활동과 교육기능 그리고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봉사가 있다. 진부한 것이기는 하되, 현실적인 구분이라는 판단이다. 대학이 이처럼 서로 다른 몇 개의 소임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복합적인 존립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 이유 가운데 어떤 것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 대학이 역사 현실적인 요청의 산물이고 보면, 그때 그때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마련이고, 이런 요청이 다양한 것이어서 그 소임도 그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19세기 이후 학문의 연구와 학자의 양성에 주안점을 둔 독일 대학과 관리 응용문으로서의 덕함이 강조되었던 프랑

스 대학의 전통 속에서 그리고 전작부터 귀족계급을 중심으로 한 전인교육을 이념으로 했던 영국 대학의 학풍 속에서 대학의 성격과 소임이 국가·사회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라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학에는 국가가 세운 국립대학이 있는가 하면, 국왕이 세운 왕립대학이 그리고 교회 등 종교단체가 세운 종립대학이 있다. 거기에는 국가 귀족이나 교육 독재자가 설립한 대학이 있으며, 산업사회의 특수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국가나 기업이 창립한 대학도 있다. 이들 대학은 그 설립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전학 또는 장학 이념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이 소임의 다양성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을 일차적인 소임으

로 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봉사과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도 있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이 소임의 다양성은 대학 기능의 중심력의 분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대학의 활발한 학술, 교육, 문화활동을 위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나 하겠다. 다양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학은 복합적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기 제도 수정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최일적인 제도나 성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지적 활동의 경직 상태 및 독점적 지배를 상대화하거나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사이의 소임의 분업 현상이 늘 뚜렷한 것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대학은 그 전문성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위에서 열거된 소임들을 역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대학의 긍정적인 사명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적인 효과만을 위하여 쓰고 있는 대학들도 각종 연구소와 연구시설을 마련하여 교수나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돕고,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학도 연구 업적의 계승과 확대를 위하여 연구 인력의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은 교육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기도 하며 연구 성과를 그때 그때 제공하기도 한다. 역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은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고취하며 대학의 지적, 교육적 생산력을 높인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의 소임이 이들 셋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선택적인, 즉 택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더우기 어떤 특정 대학의 소임이 아니라 대학 일반의 소임을 논할 때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 소임 가운데 어느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미루어 일차적인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을 옮겨 대답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대학이 오늘날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 대학이 거기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그것이 대학에 무엇을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이 무엇을 위하여 있으며 그것의 최종적인 존재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과 같다.

사회는 대학의 최종적인 존재 기반

몇 해 전부터 학생 소요가 있을 때마다 일부 학생들이 대학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대학의 운영이 크게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교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런 일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대학이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몫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보아서도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능력을 잃고 있다는 일종의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이 지적 도열을 담당할 여유를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수들의 안일한 연구 자세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서 교수가 마땅히 대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몇몇 교수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먼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관계로 이해한다. 피교육자에게는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는가 하면 교육자에 대한 신뢰와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를 옛 서당에서의 훈장과 학동들과의 관계와 비교하기도 한다. 서당의 훈장처럼 교수는 대학의 주인으로서 교단은 지

키고 대학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교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원한 학생들을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하여 다시 사회에 내보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논쟁에서 우리는 대학 초기의 역사의 한 현실이 반영되고 있음을 본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그 대학 도시와 대학의 교수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세기 말 볼로냐 등에서 조직된 학생조합과 이 조합의 압력에 밀린 나머지 자구적으로 동업조합을 만들어 이에 맞섰던 교수들의 실랑이를 실감할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적인 논쟁은 오늘날의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전근대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전설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덧덧한 것 또한 되지 못한다. 또 이런 논쟁 자체가 대학의 존립 이유에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볼로냐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교수와 학생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공존의 불가피성을 터득하면서 교수와 학생은 손을 잡았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학은 모든 대학의 효시가 되었으며, 그 전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은 전적으로 교수의 것이거나 학생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주된 기능이 어디에 있

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학은 교수의 직업 행사들 위한 단순한 직장일 수 없으며 지식의 습득과 전달이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학생집단일 수도 없다. 필자는 대학은 그 설립자가 누구이고 그 건학이념이 어디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사회의 것이라고 본다. 반사회적인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수와 학생은 먼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갖고 대학에서 만나는 것이다. 역할의 분담이 있을지언정 이들 모두가 대학의 존립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될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일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연구와 지식의 전달 그리고 학생의 전인교육에, 그리고 학생은 배우고 교수의 지도를 청탁에 있어서 상호 정중하며 성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교수와 학생은 공동의 이상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에 좀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그것의 최종적인 존재 기반인 그 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봉사의 테두리 속에서 대학에서의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 소임으로서의 연구기능

대학이 사회의 것이라는 것

은 결코 그것이 그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영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은 뿐더러, 대학이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추 관계 속에서의 봉사를 가리키지 않는다. 대학은 오히려 그 사회의 전환을 옹호하여 그 교정책을 찾아 제시하여야 한다. 거기에다가 대학은 비판 정신의 함양과 진리에 대한 용기를 통하여 그 사회의 '등대'가 되며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은 새로운 연구와 전문 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이차적 사회 모델을 제공하고 선도함으로써 그 봉사의 소임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가 대학에 무엇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문화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계몽적 수요는 대체로 충족되어 있다고 본다. 사회의 기능이 전문화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던 이에 따라서 전문 연구와 전문 인력의 양상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연구 두자들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연구에도 그 전문성에 따라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 몇 나라에서는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교수 제도와 연구소 중심의 대학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육 시설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도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고등교육 기관의 수요가 이미 100을 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 대학생의 비율 또한 세계에서 새겨가 될 만큼 높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고 있다. 여러 정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선진 사회의 문턱에 와 있으며 이 문턱을 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런 선진화의 원동력은 대중화된 교육이라기보다는 기술혁신 등 전문 연구 성과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과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또 산학협동이 강조되면서 연구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학에 대중 교육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대학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귀속된다는 사실과 사회의 요구가 고급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위에서 열거한 소임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한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의 육성이 될 것이다. 대학은 우선 지식 전달과 전인교육을 수행 목표의 하나로 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 이 교육은 강의와 대화를 통한 학생 지도 그

리고 여타의 교육 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피교육자로서 교육자인 교수를 만나며 그 가르침을 상한다. 교수도 이 교육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 전달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격 함양을 돕게 된다. 사회는 이런 교육적 환경을 돌보기 위하여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성숙한 시민의 배출을 기대한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따라서 그 교육의 기회를 정규도르그럼 밖에까지 넓혀 왔다. 그 시설을 개방하고, 계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각종 특수대학원, 야간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이 생기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학의 소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육 기능에서이다.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봉사의 기능은 어떠한가? 이 기능에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되돌려 주는 간접적인 것 말고, 교수와 연구원 등의 사회 활동,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의 전달, 여러 형태의 산학협동 등이 있다. 즉 사회의 기능이 분업화·전문화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는 더 많은, 더 우수한 지도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대학은 그가 오랜 연구를 통하여 축적해 온 지식들을 사회에 제공, 적용하도록 하게 되었다. 경제학자는 국가경제 수립에, 도시계획 전공 교수는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작업에, 의학 교수는 환자의 치료에, 국어학

자는 언어정책에 참여한다. 교수들은 여러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저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계나 언론계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저기에 비한다면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은 구체적인 주문에 의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구자 자신의 관심과 책임 속에 수행되며 그 성과가 주는 성취감 또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연구자의 것이 된다. 그래서 연구 활동은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관심과 성취의욕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두터운 벽 뒤의 연구실과 실험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한 연구 결과를 위하여 많은 시일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파급 효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적이며 그만큼 간접적이어서 사회는 인내심을 갖고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대학에서의 연구 종사자들이 자기도취적인 지식의 탐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학자들의 논의는 공리공담처럼 들리고 연구실 속에서의 눈에 띄이지 않는 연구 활동은 사회의 관심과는 무관한, 자기목적적인 것으로까지 보이게 된다.

$P = \theta \frac{N}{V}$ 이 갖고 있는 의미나, 100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을 탐사하는 것, 1억 년 전의 화석을 조사하는 것, 땅 속 깊이 묻혀 있는 비석을 찾아 내어 옛 상형문자를 판독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수백 년 묵은 전직을 꺼내 읽고 있는 것이나, 2000여 년 전에 화산과 지진으로 묻혀진 도시를 종이 위에 재현하여 내는 것 또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고가 따르기 마련인데도 이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가 무엇에 사용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철학과 미술사학과 같은 이론바 '방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기예' 또한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러한 전문 연구 성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우리 세대에 누리고 있는, 고도로 섬세한 정신·물질 문화와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깨달게 될 것이다. 눈에 띄이지 않는 연구 성과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대학이 지니고 있는 연구기능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같이 참여하기도 한다. 국제적 산업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크게 길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구 심파이다.

대학의 소임들의 내용이 서로 다른 만큼, 대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 실현을 위한 그들의 기여의 방식도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러던 이들 소임 가운데 어느 것이 일차적인 것인가 하는 것

이다. 아무리 대학의 교육기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교육이다. 그런데 연구 활동이 선행하지 않는 한, 즉 연구 성과 없이 어떻게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이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의 획득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겠는가? 또 구체적인 연구 성과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학은 무엇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오늘날 우리 대학의 소임은 어느 것보다도 연구에 있다고 본다. 그것에 질 높은 교육이, 효과적인 사회봉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연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가로막는 요인들

대학의 연구기능의 효율적인 수행과 극대화될 가르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대학사회에는 여럿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대학은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끼야 하되 연구와 교수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교양의 함양은 성년에 이른 학생 개개인이 도모해야 할 일이고,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을 받을 준비는 마땅히 대학 입학 이전에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방대한 교양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지니고 있는 그나다의 힘을 탕진하고 있다.

교양과목의 경우, 중등교육이 정상화되어 기초적인 소양

이 마련되어 있다면, 왜 대학은 예의 교양과목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우리 글의 작문을 가르쳐야 하는가? 더구나 체육 활동을 통하여 신체관 단련하는 것 또한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교수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다. 폭주하는 정보와 첨단이론에 대한 섭렵 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정진해야 하는 데도, 특문학 교수는 교양 과정에 나가 학생들에게 아, 베, 채와 테어, 데스, 텀, 덴을 따라 읽히고, 철학 교수는 모순과 반대의 차이 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서 교수는 학자적인 성취감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탈감까지 갖게 되기도 한다. 또 이런 산만한 교양교육은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물론, 대학교육의 전문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 경우가 어떻고 교육이론이 어떻든간에, 중등교육 기간 동안 기렸어야 할 내실은 대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대학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행정력 강화에서 야기되는 경직 현상이 지적되어야 한다. 대학은 보편적 진리가 추구되며 지적 모험과 자기갱신이 끝없이 시도되는 곳이다. 그것은 또 사회적 양심의 원천이며 사회 정의의 보루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적 활동과 모험을 위하여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유로운 지적 분위기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창의력 또한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물론 대학이 고교한 성역이어서 사회의 안녕이나 형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전대의, 무차별한 자유를 홀로 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행정은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던 있어야 하되, 전원에서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소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 대학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가능한 모든 학과를 개설하고 연구실을 세워 두씩을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실질적인 연구 환경 개선에는 다음을 크게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행정조직은 그 힘을 강화하여 대학사회의 운영을 수직화하고 통제권 제도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유로운 지적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 또 보직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지배세력이 형성되어 대학사회가 양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어서 대학교수 등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론되어야 한다. 교수에 대한 처우개선과 연구 환경의 개선은 먼저 교수 등 당사자의 문제이지, 외부의 은연에만 의존할 것이 못된다. 지금까지 교수에 대한 처우가 문제될 때마다 논

의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급여의 인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대학이 안고 있는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은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우 개선이 단순한 급여의 인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의 지적 활동은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재정적인 환경 개선은 연구 활동에 제한된 도움만을 줄 뿐이다. 이것에 우선하는 것은 연구 동기와 의욕이다. 따라서 예의 동기의 부여

와 의욕의 증대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는데, 이 조건에 충분한 시간, 연구 활동의 자율성 그리고 지적 활동의 자유가 속할 것이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誌 제23호에 게재할 原稿을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教育과정이나 교수·학생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동향 소개, 최근(2~3년내) 外國에서 발간된 學術叢籍 중에서 국내 학계에 널리 소개할 만한 서적에 대한 서평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 | | |
|------------|--------|
| ① 論 壇 | ② 教授談論 |
| ③ 學科別 教育課題 | ④ 新刊紹介 |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②는 15매, ④는 13매 또는 22매)

3. 期 限—1986년 7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 (쇄적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T.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